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원지수, 최선훈, 이연경*

*교신저자 : yeonkyenglee@korea.kr, 043-719-7380

초 록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조사이다. 본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보건소 및 35개 책임대학교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19년에는 8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22만 8천 명의 표본을 조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다루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 12년 간 주요 만성질환 치료율 및 손상예방 관련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흡연을 제외한 건강행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본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chs.cdc.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 검색어 :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수준, 건강행태, 만성질환

들어가는 말

지역사회건강조사(Korea Community Health Survey)는 지역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 통계를 제공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¹⁾.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이환과 치료수준, 체중조절 행태와 비만수준,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안전의식, 그 이외 삶의 질 지수 등이다. 255개 보건소별로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여명을 조사하며,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전자조사표(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를 이용한 면접조사로 200여 개의 건강관련 문항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150여 개의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2019년 8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22만 8천 명을 조사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 주요 지표 14개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몸 말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주요 건강행태 결과

현재흡연율은 2019년 20.3%로 2008년 대비 5.8%p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4%p 감소하였다. 255개 지역 중 253개 지역²⁾에서 전년보다 현재흡연율이 증가한 지역 수는 72개, 감소한 지역 수는 18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최댓값-최솟값)는 17.2%p로 2008년 대비 0.3%p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그림 1).

남자의 현재흡연율은 2019년 37.4%로 2008년 대비 11.8%p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3.2%p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74개, 감소한 지역 수는 1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33.8%p로 2008년 대비 2.9%p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3.1%p

1) 근거법령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기존 남양주시 보건소가 2019년부터 남양주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로 분리됨에 따라 총 255개 보건소 중 253개 비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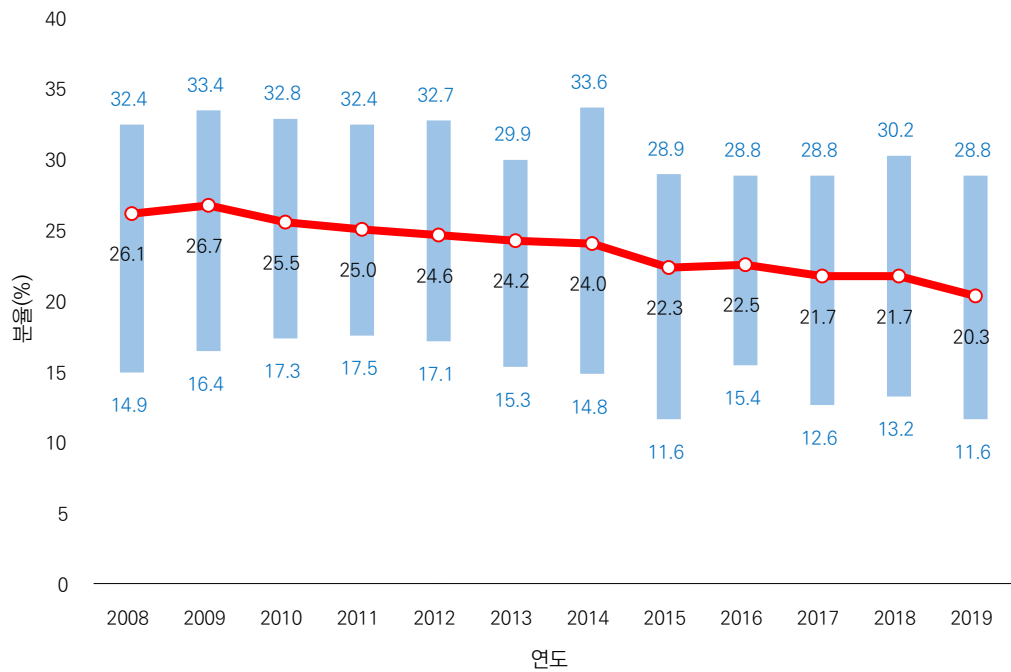


그림 1. 현재흡연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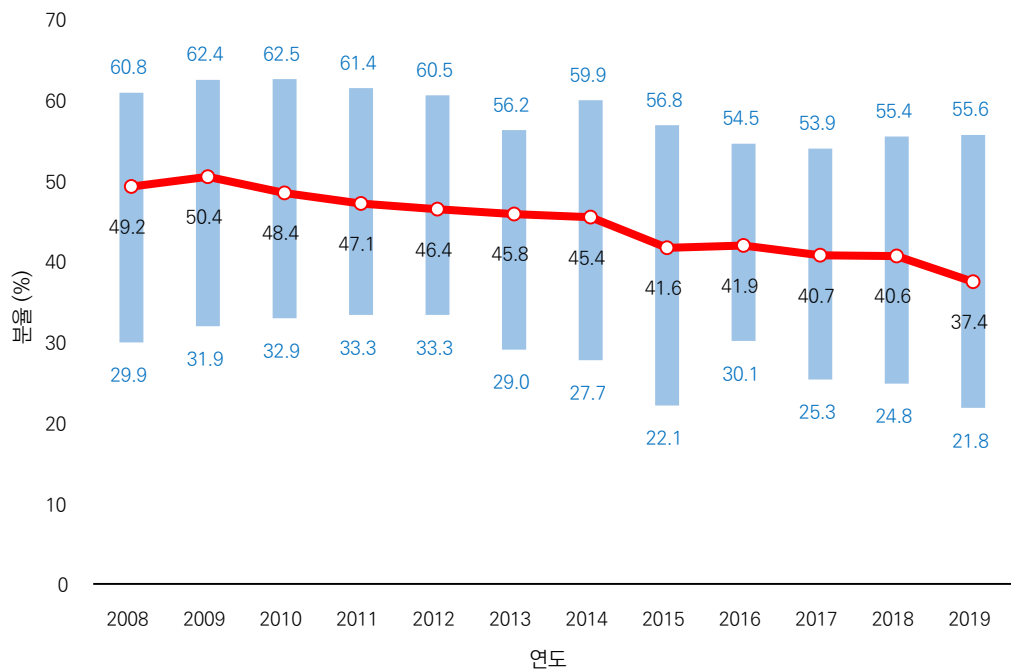


그림 2. 남자 현재흡연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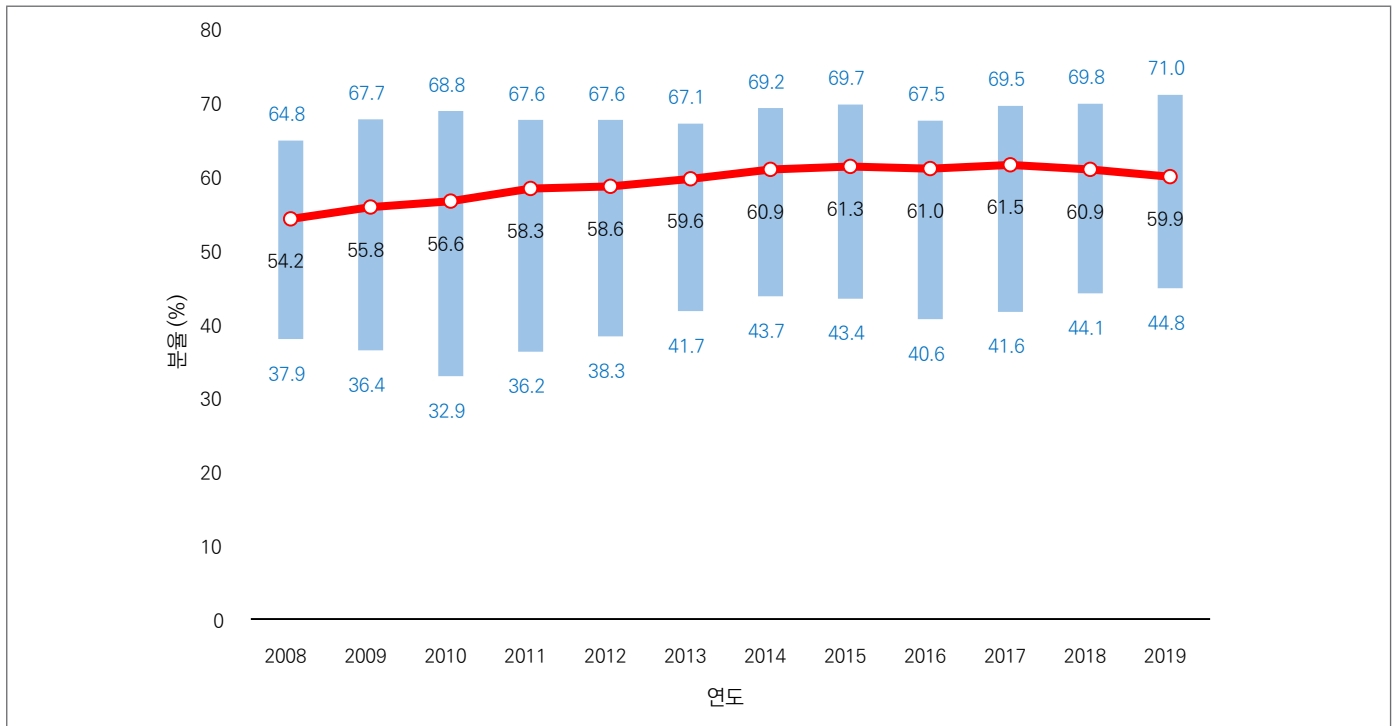


그림 3. 월간음주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증가하였다(그림 2).

월간음주율은 2019년 59.9%로 2008년 대비 5.7%p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월간음주율이 증가한 지역 수는 92개, 감소한 지역 수는 158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격차는 26.1%p로 2008년 대비 0.9%p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그림 3).

고위험음주율은 2019년 14.1%로 2008년 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88개, 감소한 지역 수는 157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격차는 19.0%p로 2008년 대비 0.9%p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다(그림 4).

걷기 실천율은 2019년 40.4%로 2008년 대비 10.2%p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2.5%p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78개, 감소한 지역 수는 17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58.0%p로 2008년 대비 17.8%p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12.4%p 감소하였다(그림 5).

건강생활실천율은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로, 2019년 28.4%로 2008년 대비 6.1%p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2.3%p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80개, 감소한 지역 수는 173개이며, 지역 간 격차는 45.1%p로 2008년 대비 12.1%p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9.4%p 감소하였다(그림 6).

스트레스 인지율은 2019년 25.2%로 2008년 대비 3.1%p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2%p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한 지역 수는 101개, 감소한 지역 수는 150개이며, 지역 간 격차는 26.4%p로 2008년 대비 7.2%p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3.4%p 감소하였다(그림 7).

우울감 경험률은 2019년 5.5%로 2008년 대비 2.2%p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4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01개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10.5%p로 2008년 대비 4.7%p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1.2%p 감소하였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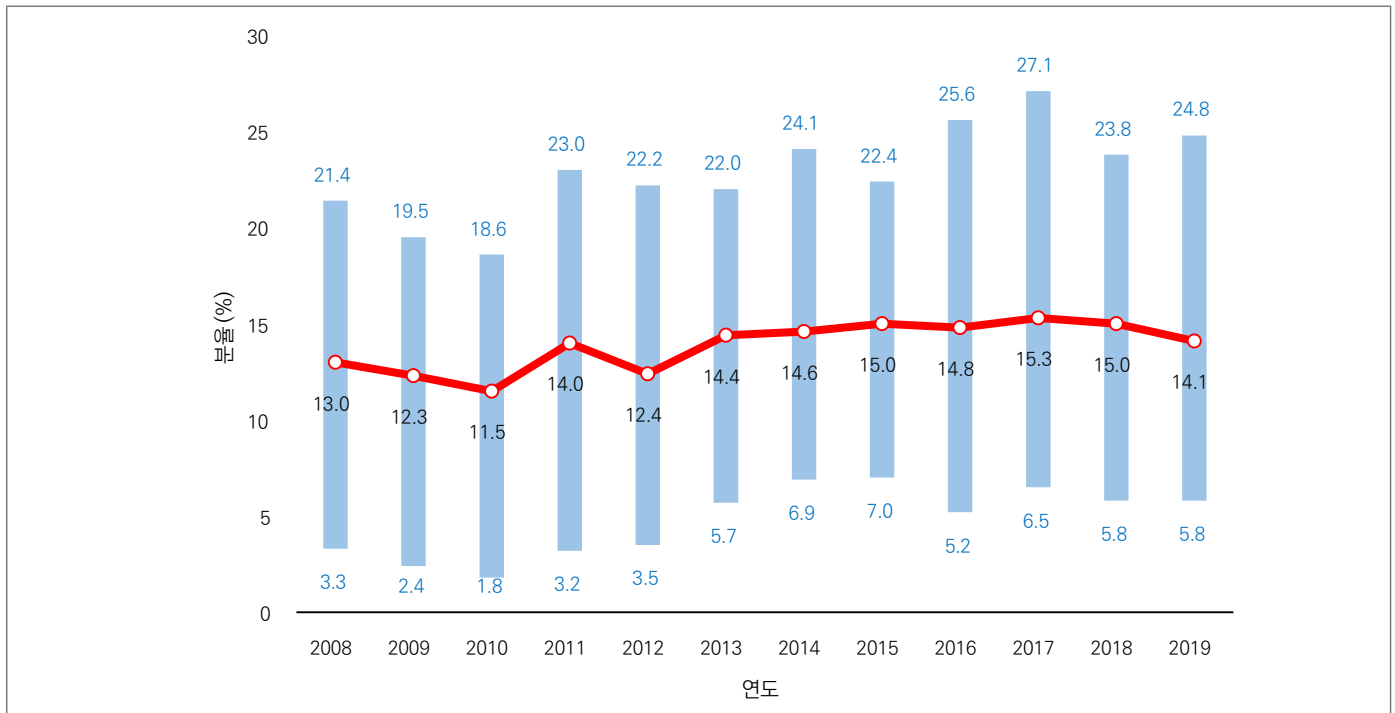


그림 4. 고위험음주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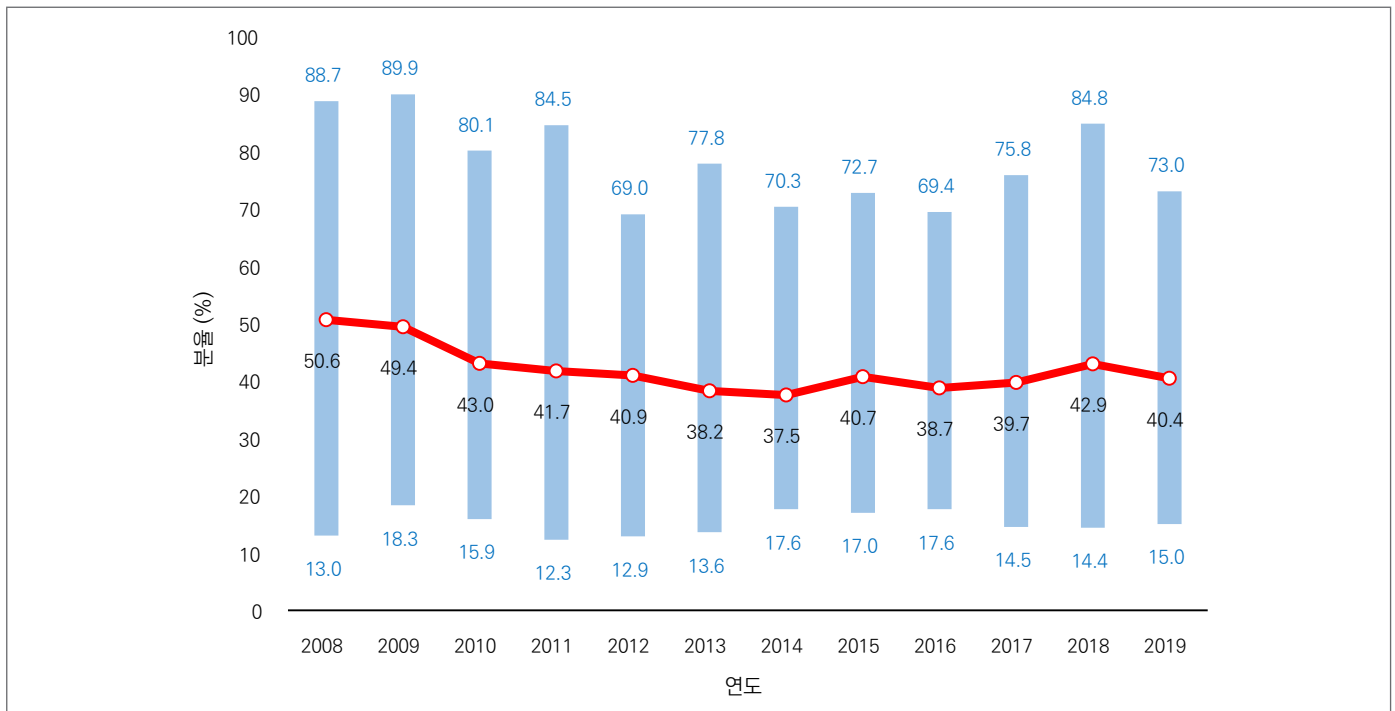


그림 5. 건기 실천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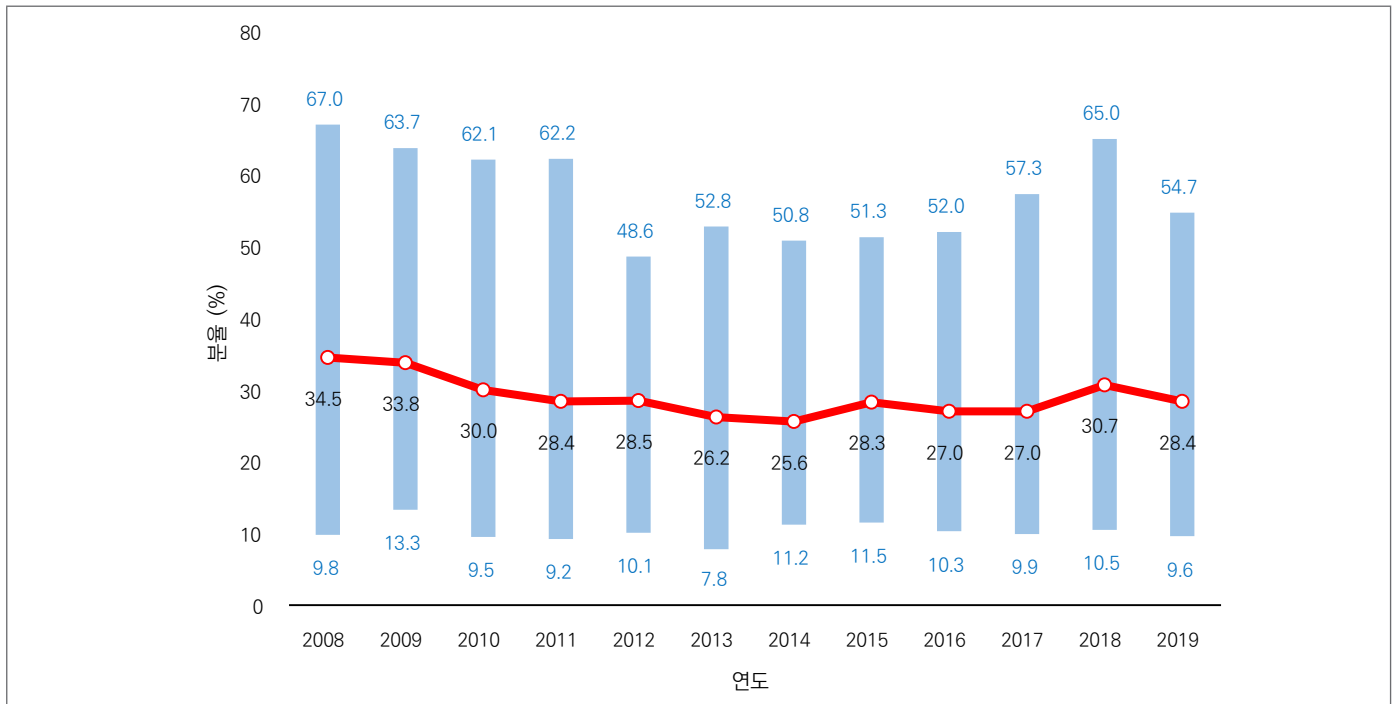


그림 6. 건강생활실천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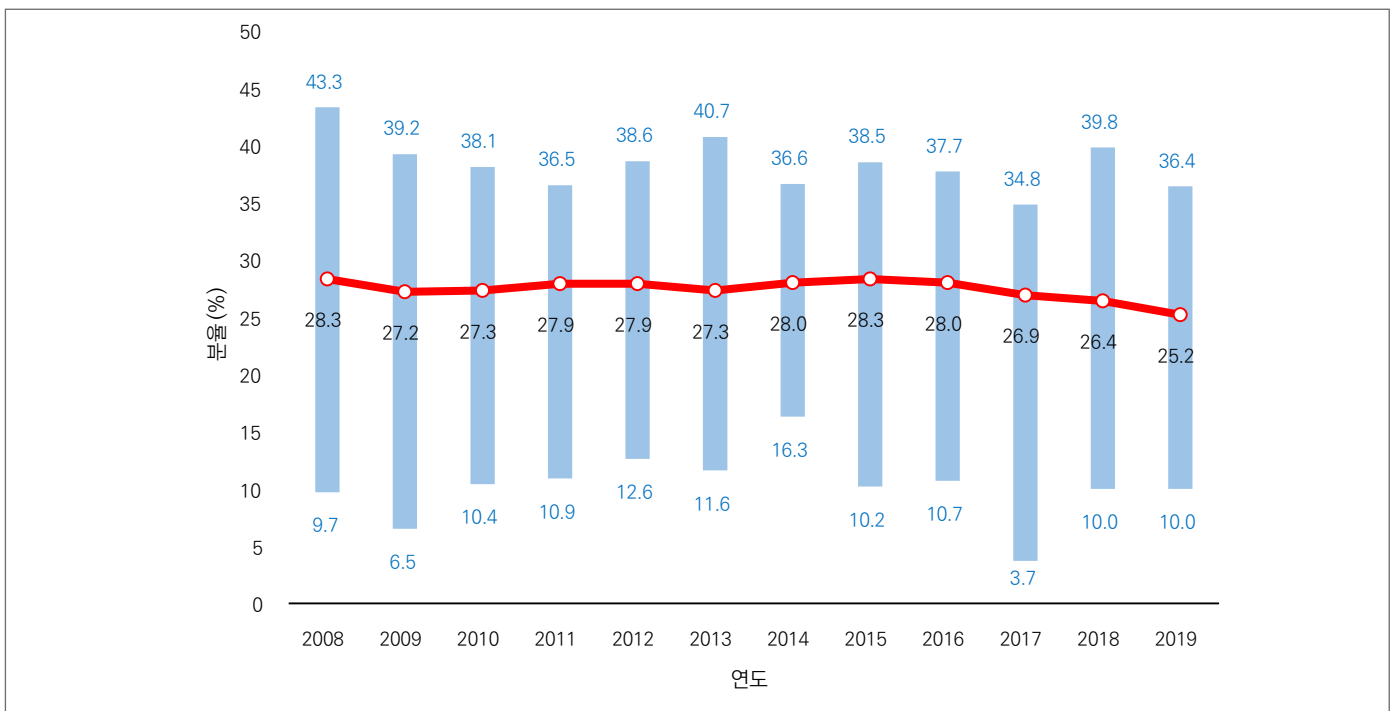


그림 7. 스트레스 인지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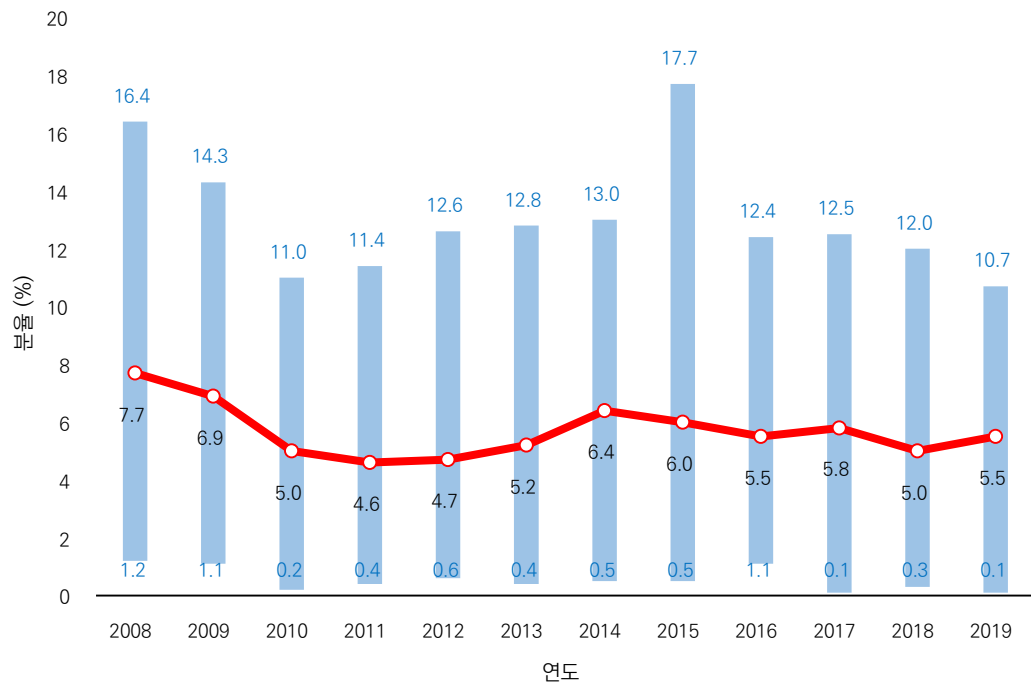


그림 8. 우울감 경험률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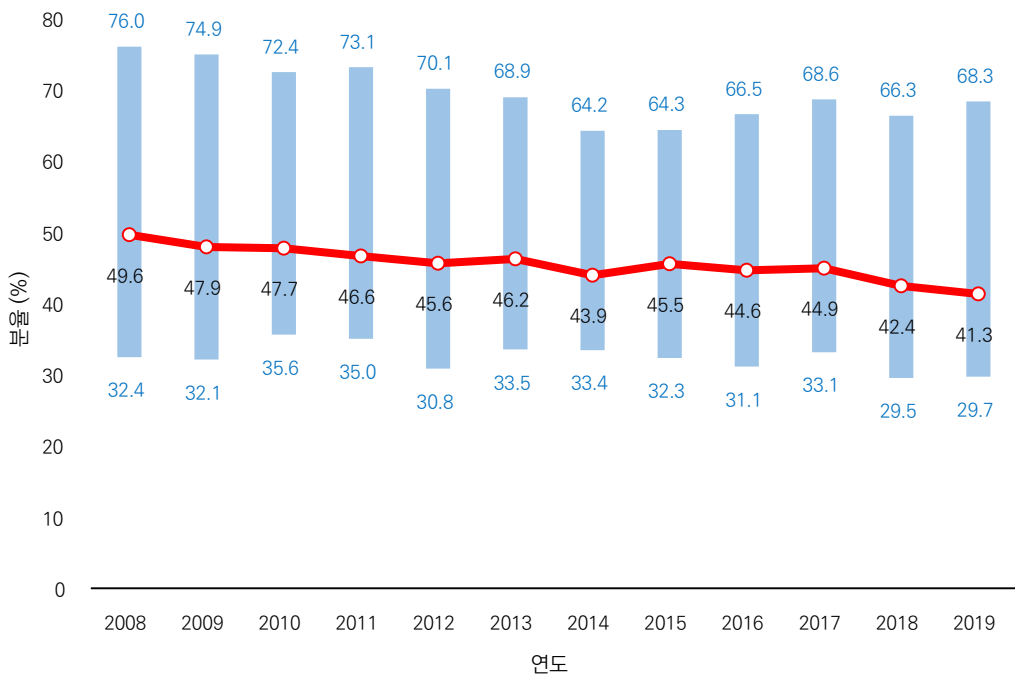


그림 9.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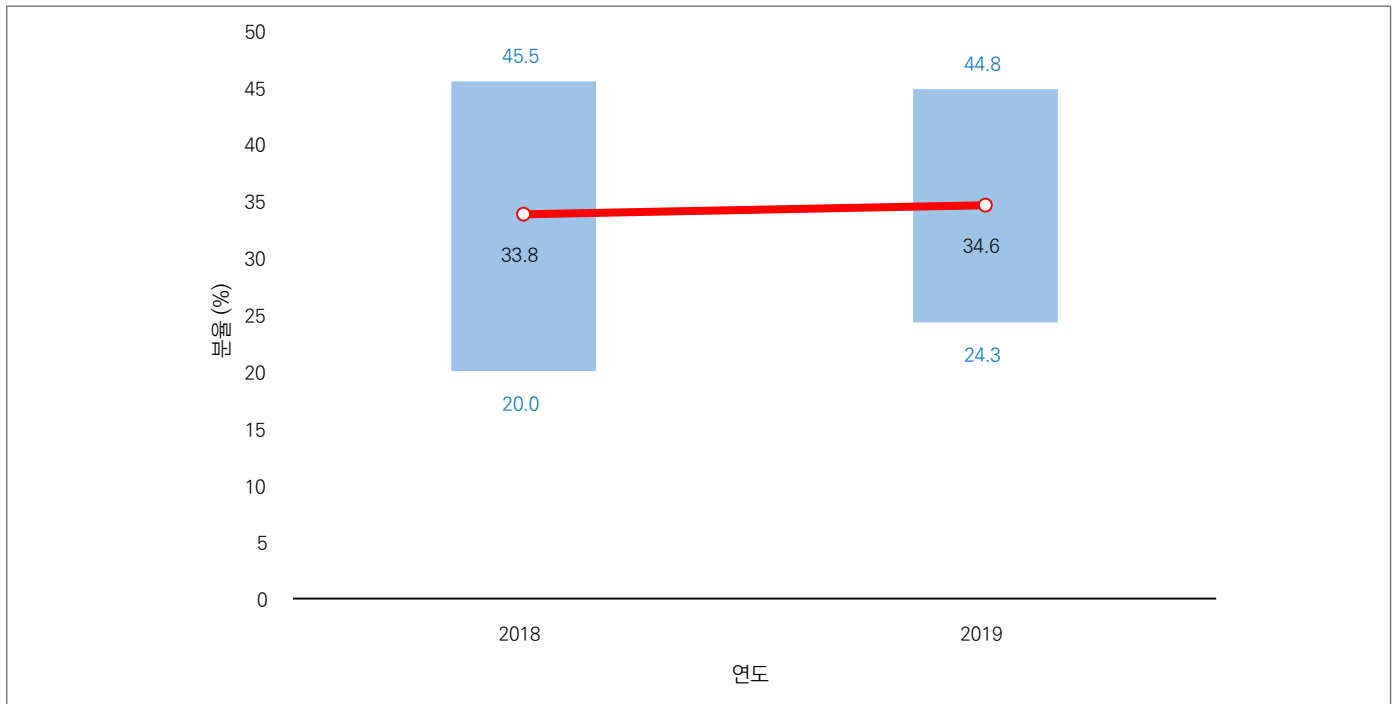


그림 10. 비만유병률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1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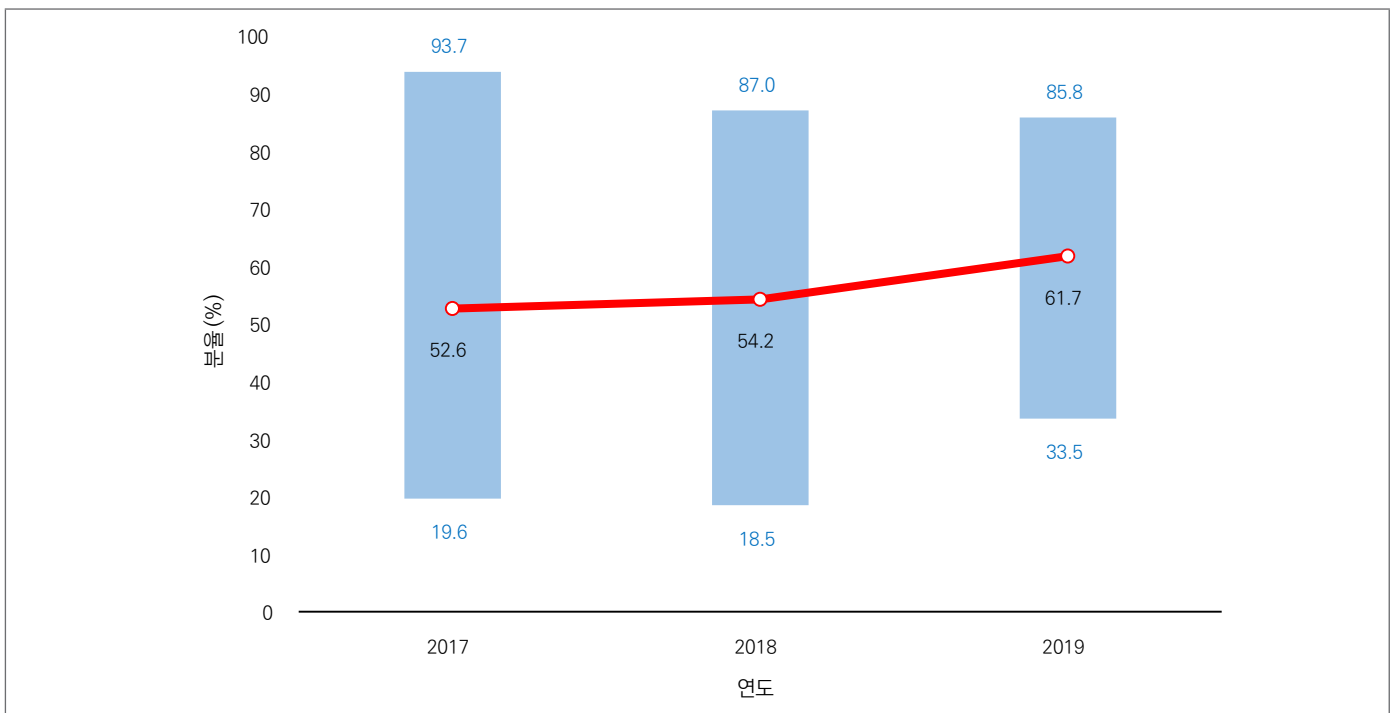


그림 11.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17~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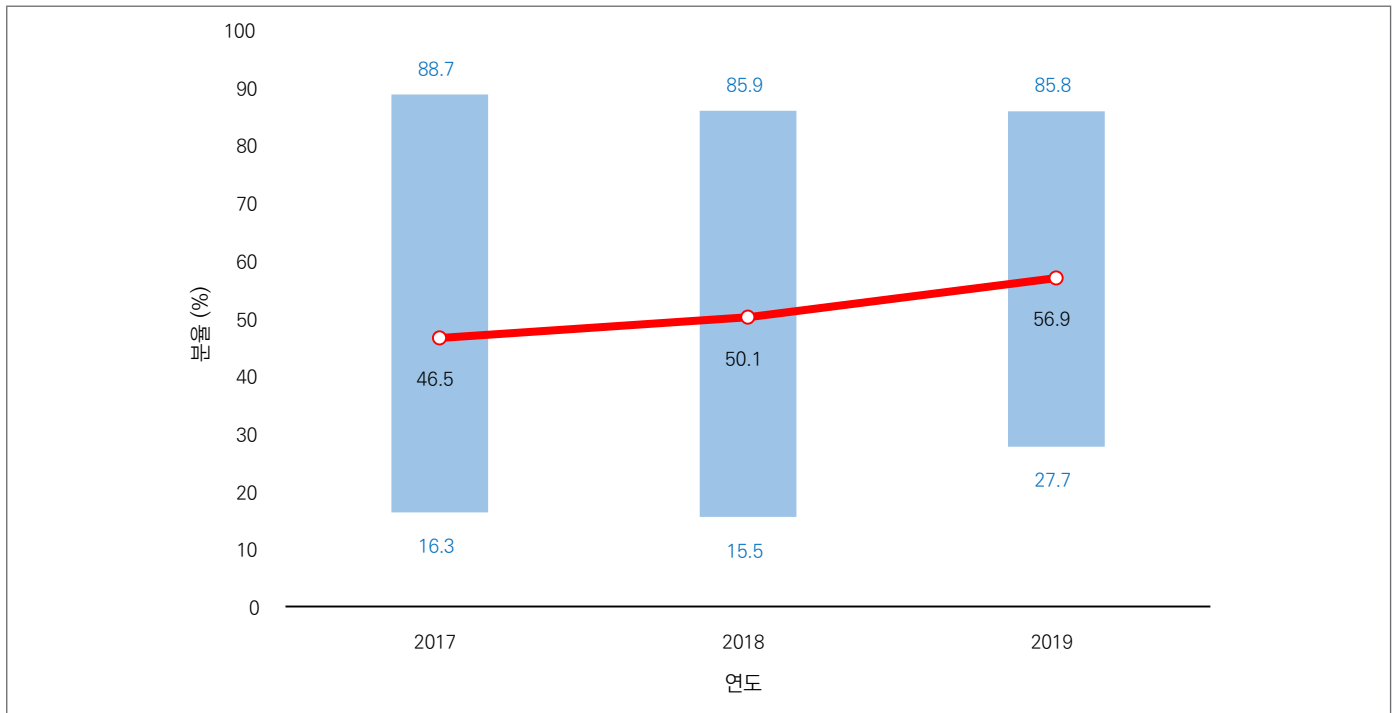


그림 12.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17~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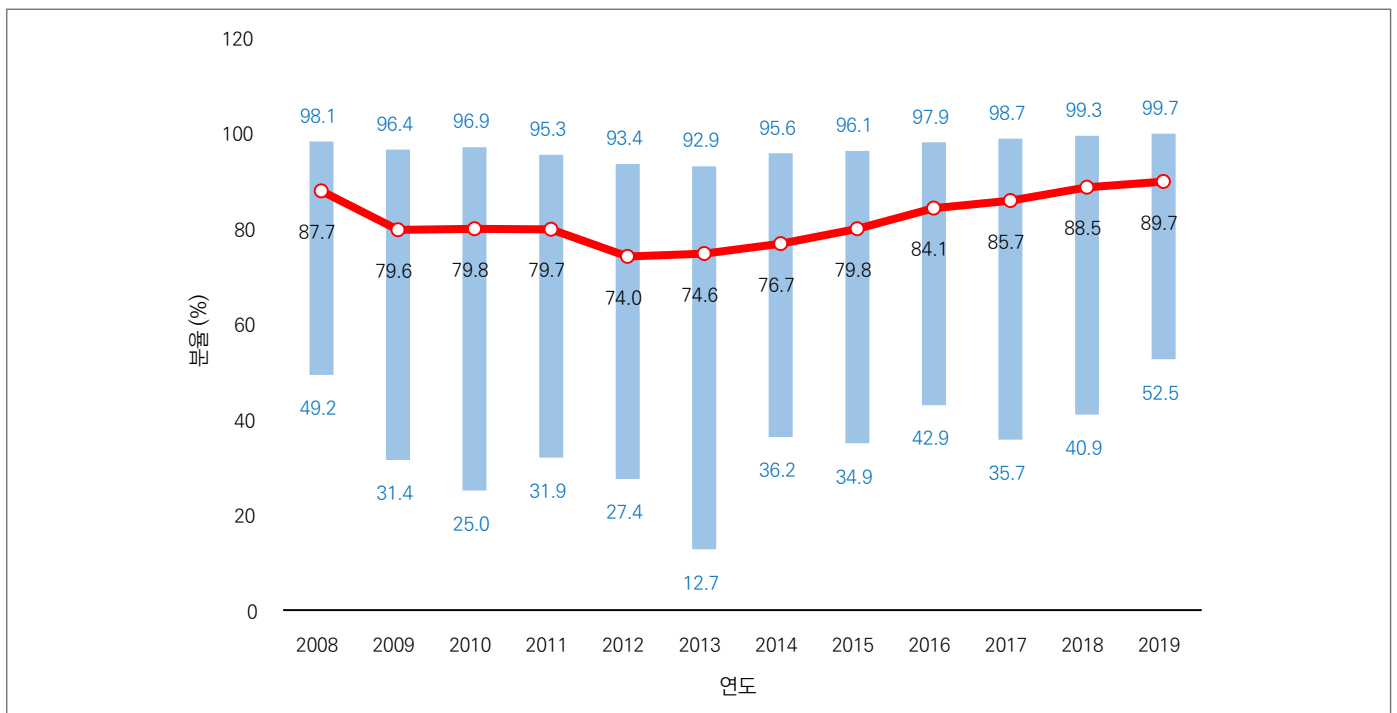


그림 13.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08~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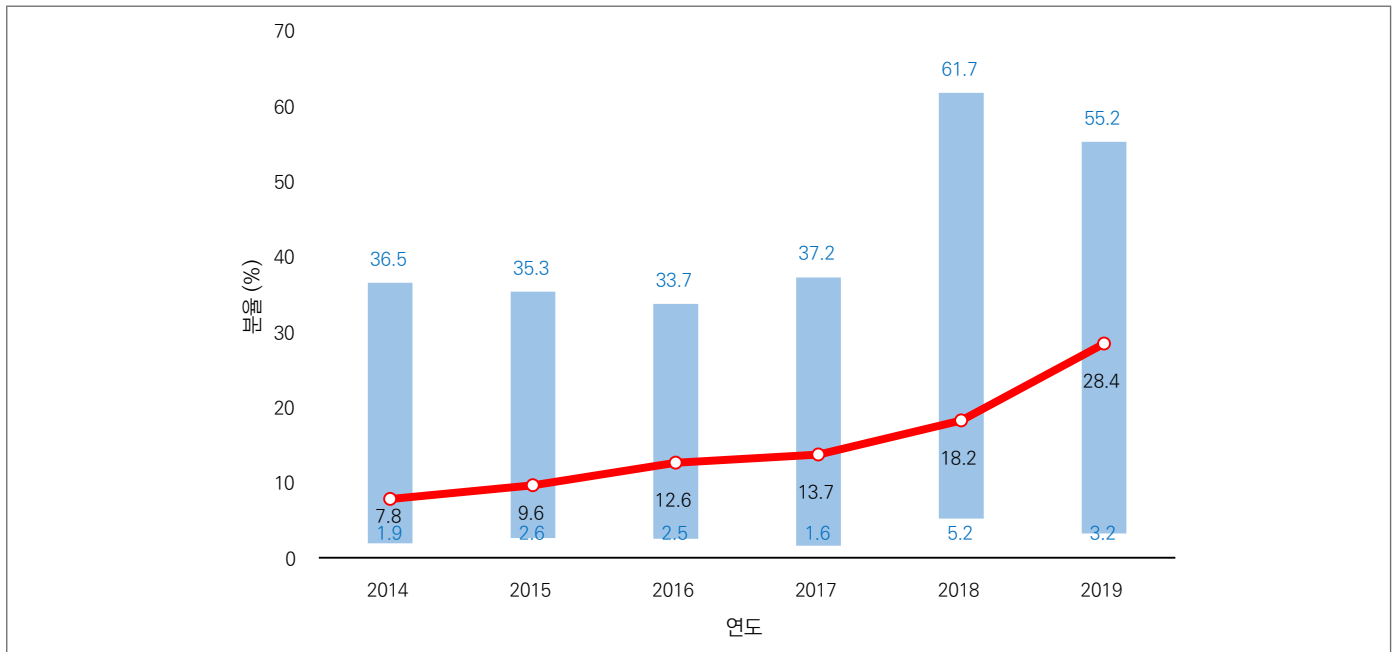


그림 14.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추세와 지역 격차, 2014~2019

* 빨간색 선: 시·군·구 중앙값(%) 추세

† 파란색 막대: 연도별 지역 격차; 막대 상단=최댓값(%); 막대 하단=최솟값(%)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2019년 41.3%로 2008년 대비 8.3%p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증가한 지역 수는 118개, 감소한 지역 수는 132개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38.6%p로 2008년 대비 5.0%p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1.8%p 증가하였다(그림 9).

이환 영역 주요 결과

2018년부터 신체계측(키, 몸무게)조사를 도입하여 실제 측정된 결과로 산출되는 비만유병률은 2019년 34.6%로 전년(33.8%) 대비 0.8%p 증가하였다. 전년보다 비만유병률이 증가한 지역 수는 139개, 감소한 지역 수는 111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격차는 20.6%p로 전년(25.5%p)보다 4.9%p 증가하였다(그림 10).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2019년 61.7%로 전년(54.2%) 대비 7.5%p 증가하였다. 전년보다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이 증가한 지역 수는 181개, 감소한 지역 수는 71개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52.3%p로 전년(68.4%p) 대비 16.1%p 감소하였다(그림 11).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2019년 56.9%로 전년(50.1%)

대비 6.8%p 증가하였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64개, 감소한 지역 수는 87개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58.1%p로 전년(70.5%p) 대비 12.4%p 감소하였다(그림 12).

안전의식 영역 주요 결과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019년 89.7%로 2008년 대비 2.0%p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다. 전년보다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지역 수는 161개, 감소한 지역 수는 91개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47.1%p로 2008년 대비 1.8%p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11.3%p 감소하였다(그림 13).

2018년 9월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019년 28.4%로 2014년 대비 20.6%p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10.2%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221개, 감소한 지역 수는 32개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52.0%p로 2014년 대비 17.4%p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4.5%p 감소하였다(그림 14).

맺는 말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도입하여 지역단위 보건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그간 표준화된 조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면서 타 지역과 비교 가능한 지역 보건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러한 그간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흡연을 제외한 음주, 비만 등 대부분의 건강행태 지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유지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과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종합통계집인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https://chs.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통계집인 「지역사회 건강통계」 또한 2020년 6월 중 해당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질병관리본부. 「2008-2019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결과. 2020.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지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신체계측(키, 몸무게)을 도입하고 수면의 질 측정도구, 인지장애 관련 조사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비만율, 건강생활실천율이 전년 대비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신체계측을 통한 비만율은 자가보고 응답에 비해 2.0%p 높게 나타났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2019년 조사 결과,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행태 지표는 2008년 이후로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걷기 실천율 및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의 지역 간 격차는 50%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③ 시사점은?

지역 간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과 집중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Key Findings of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Won Ji Su, Choi Sun Hye, Lee Yeon-Kyeng

Division of Chronic Disease Control & Research,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The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KCHS) i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with an annual sample of approximately 230,000 people aged 19 years and over. The KCHS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8.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gathered by 255 community public health centers, 35 universities,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KCDC) on health conditions and behavioral risk factors. The 2019 KCHS was performed on 228,000 people by trained interviewers from August 16 to November 20. The key findings of the KCHS were as follows. The treatment rates of chronic diseases and indicators related to injury prevention improved consistently over the past 12 years from 2008. However, most indicators related to health risk behaviors excluding smoking, have not improved. In addition, health perception decreased during the survey period. Furthermore, regional disparities of most health risk behaviors remained constant. The survey results are available at the KCHS website (<https://chs.cdc.go.kr>)

Keywords: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Health status, Health risk behavior, Chronic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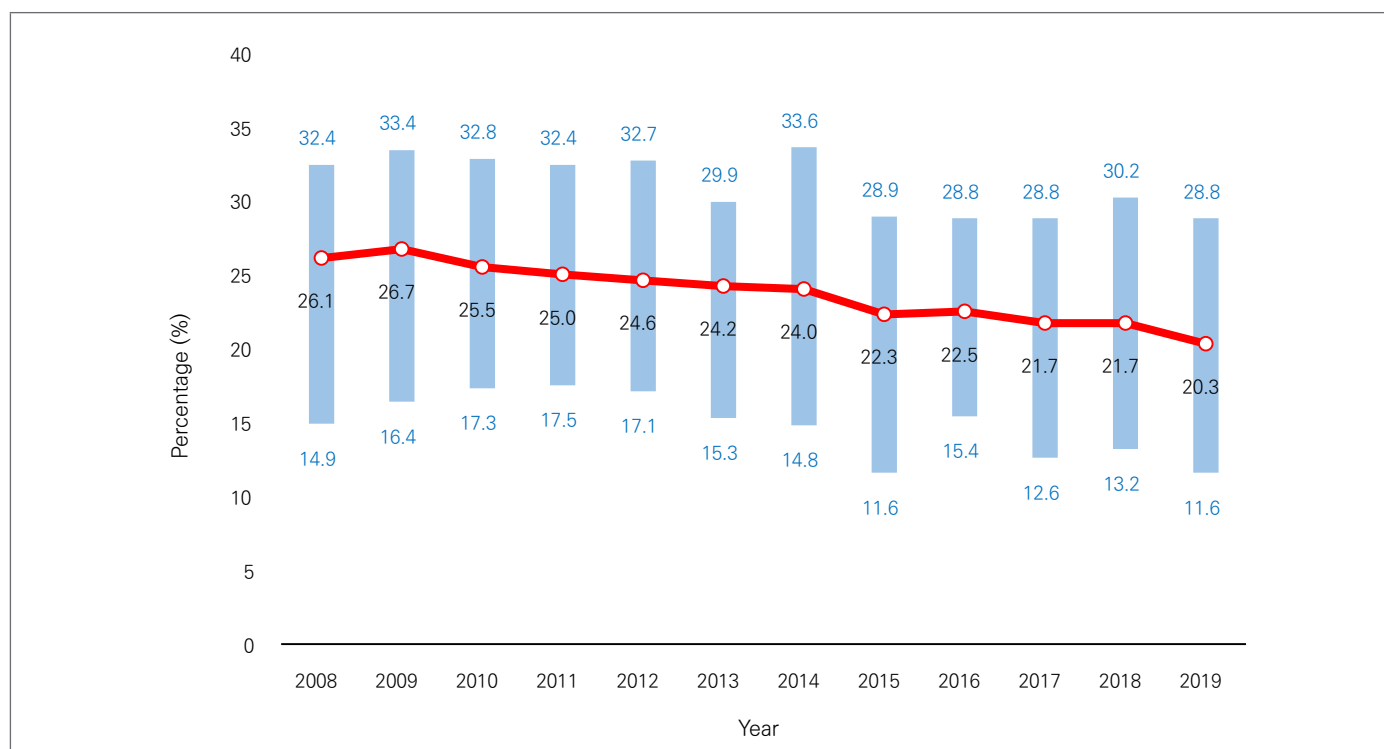


Figure 1.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smoking rate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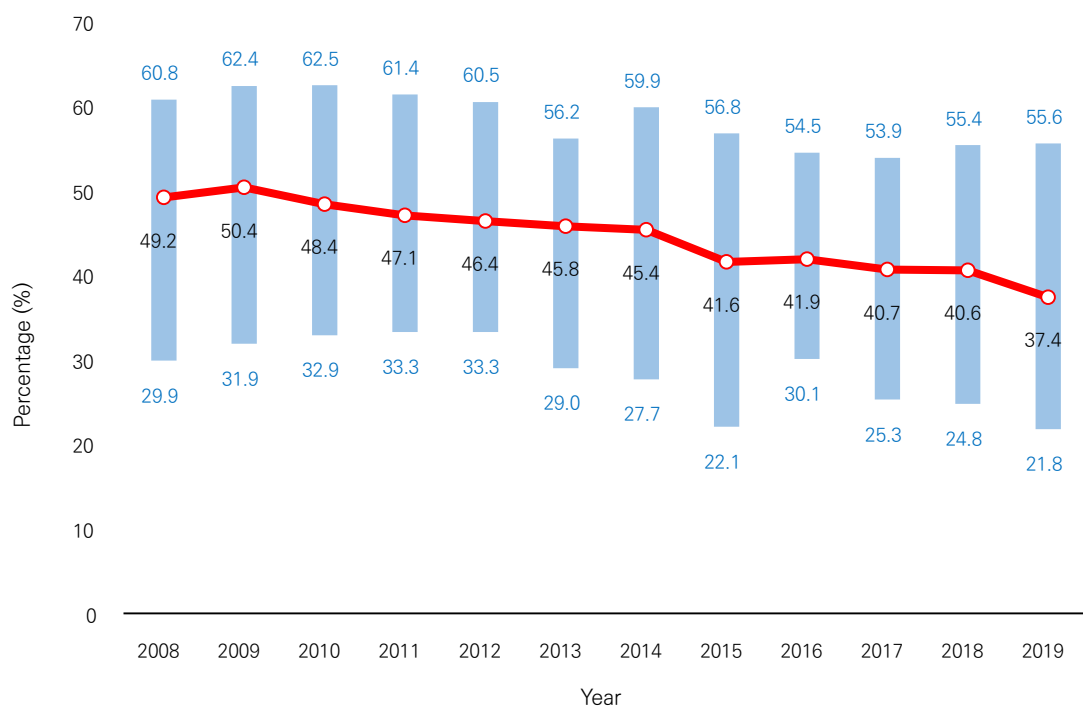


Figure 2.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smoking rate of male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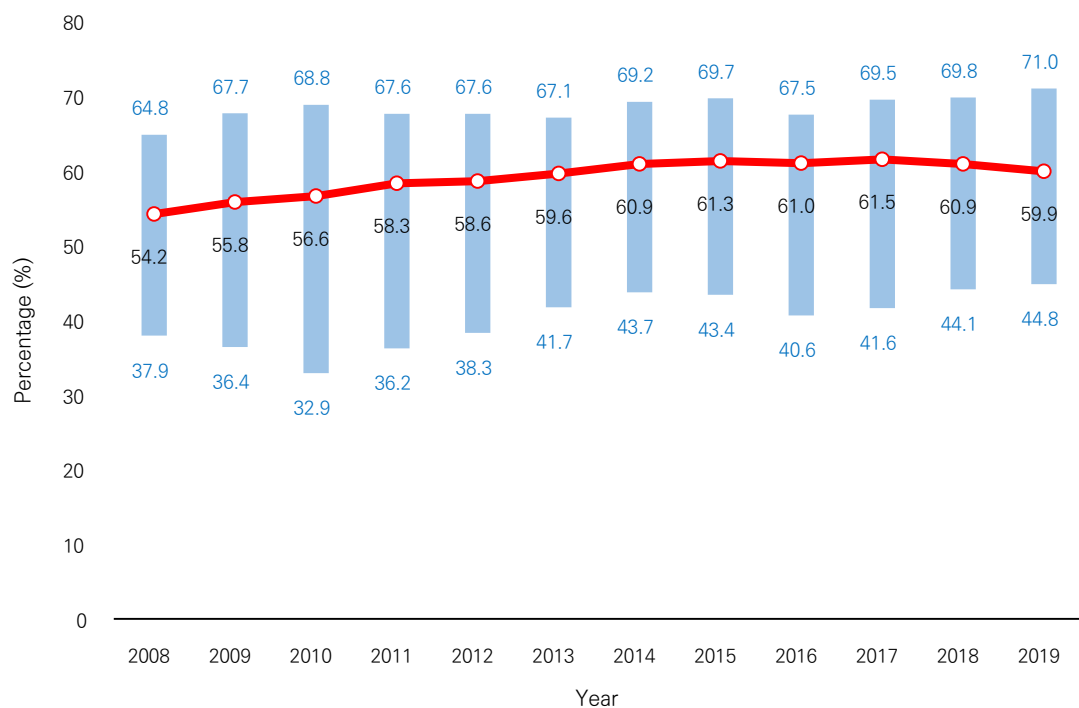


Figure 3.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monthly drinking rate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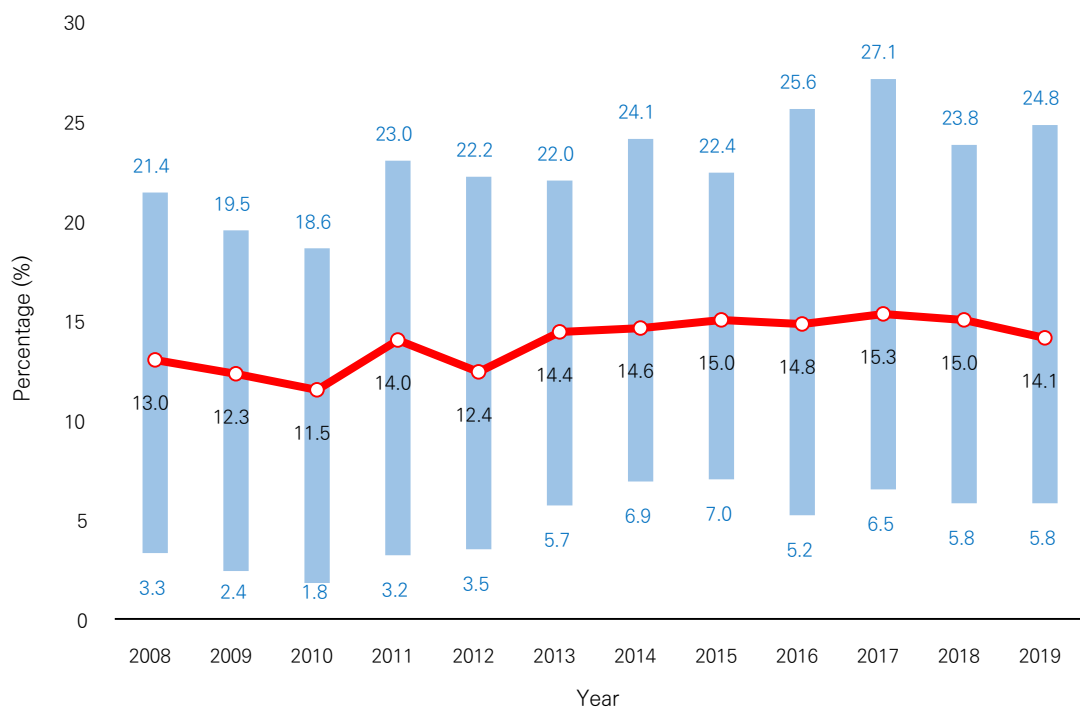


Figure 4.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high-risk drinking rate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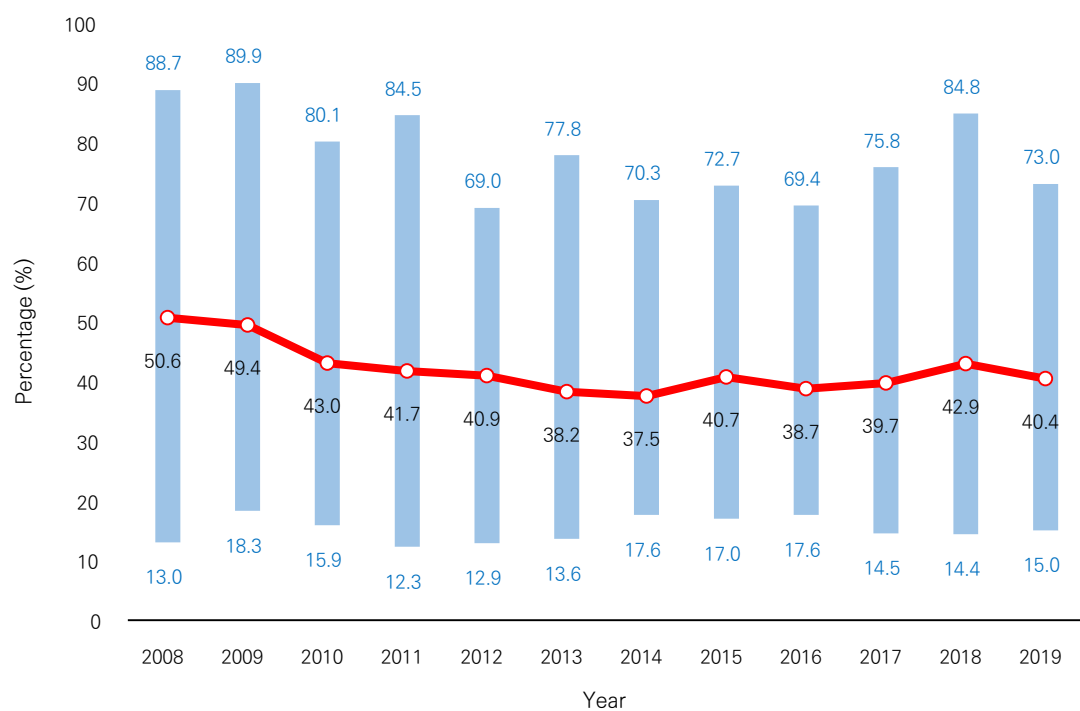


Figure 5.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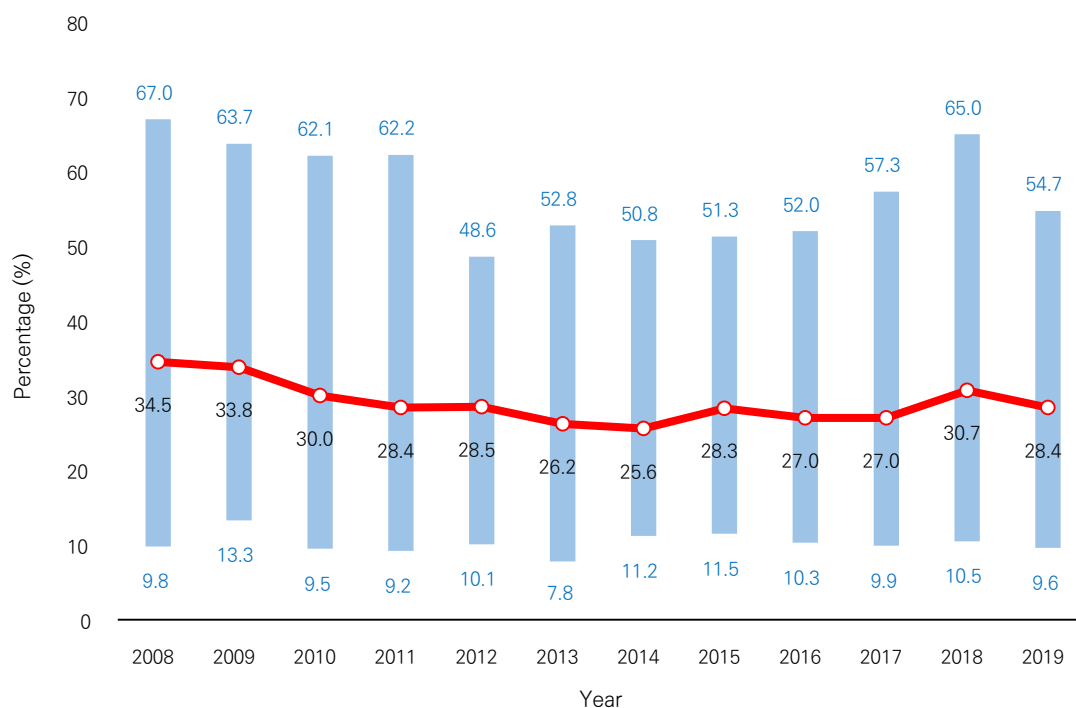


Figure 6.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healthy lifestyle practice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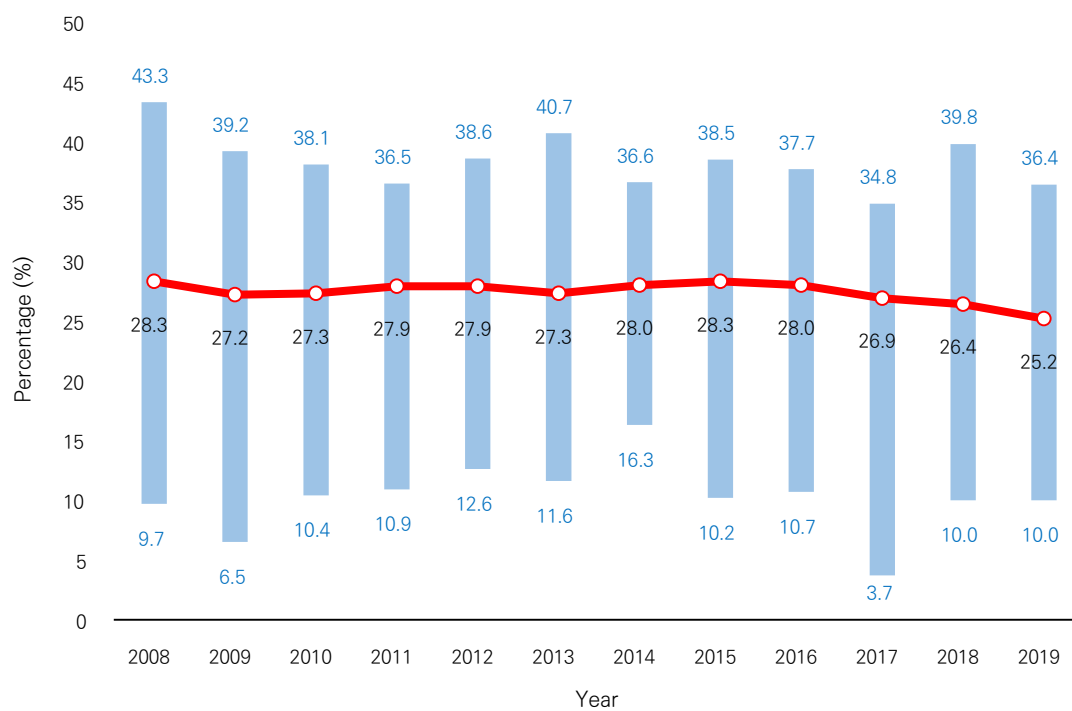


Figure 7.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stress awareness rate,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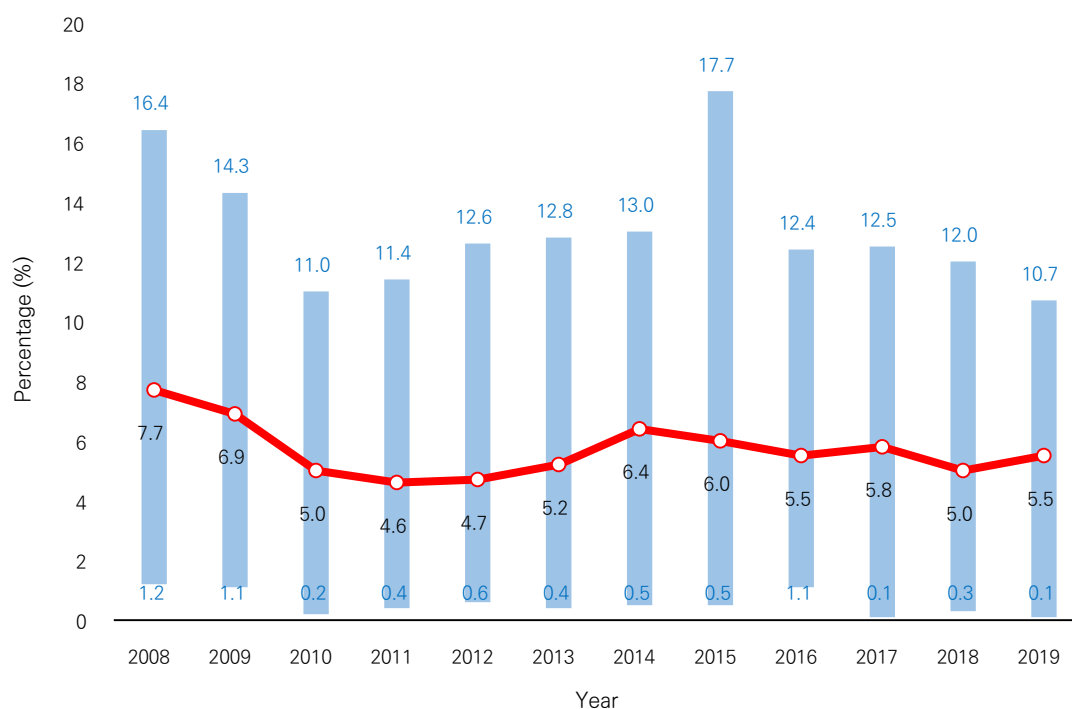


Figure 8.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periods of depression,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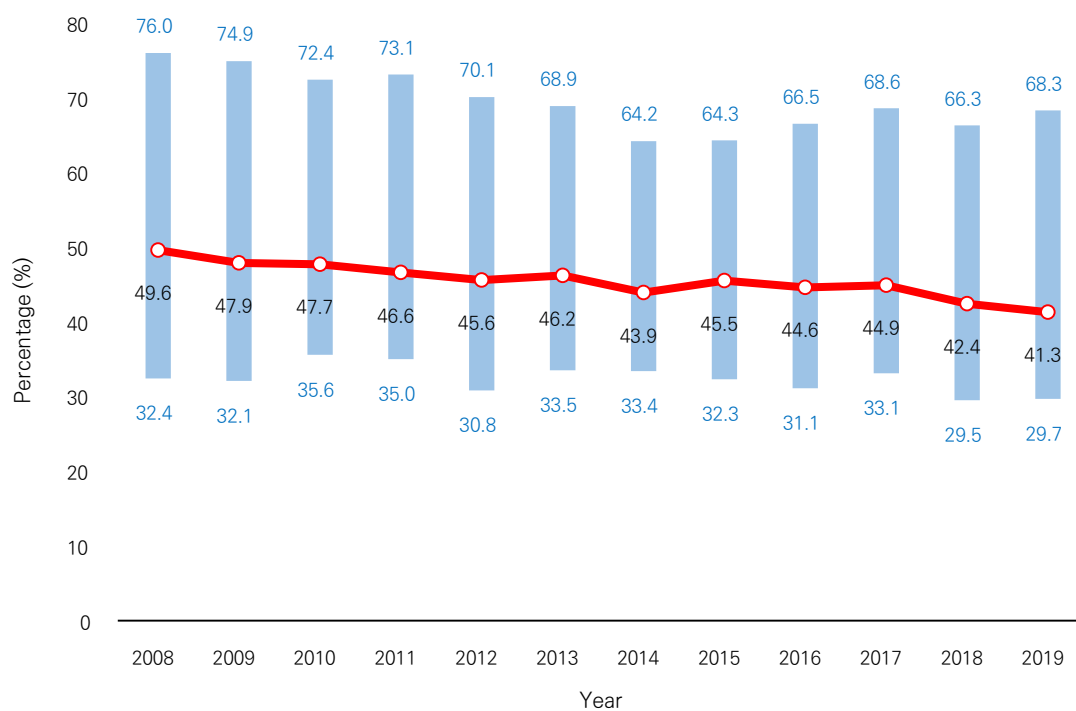


Figure 9.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subjective perceptions of good health,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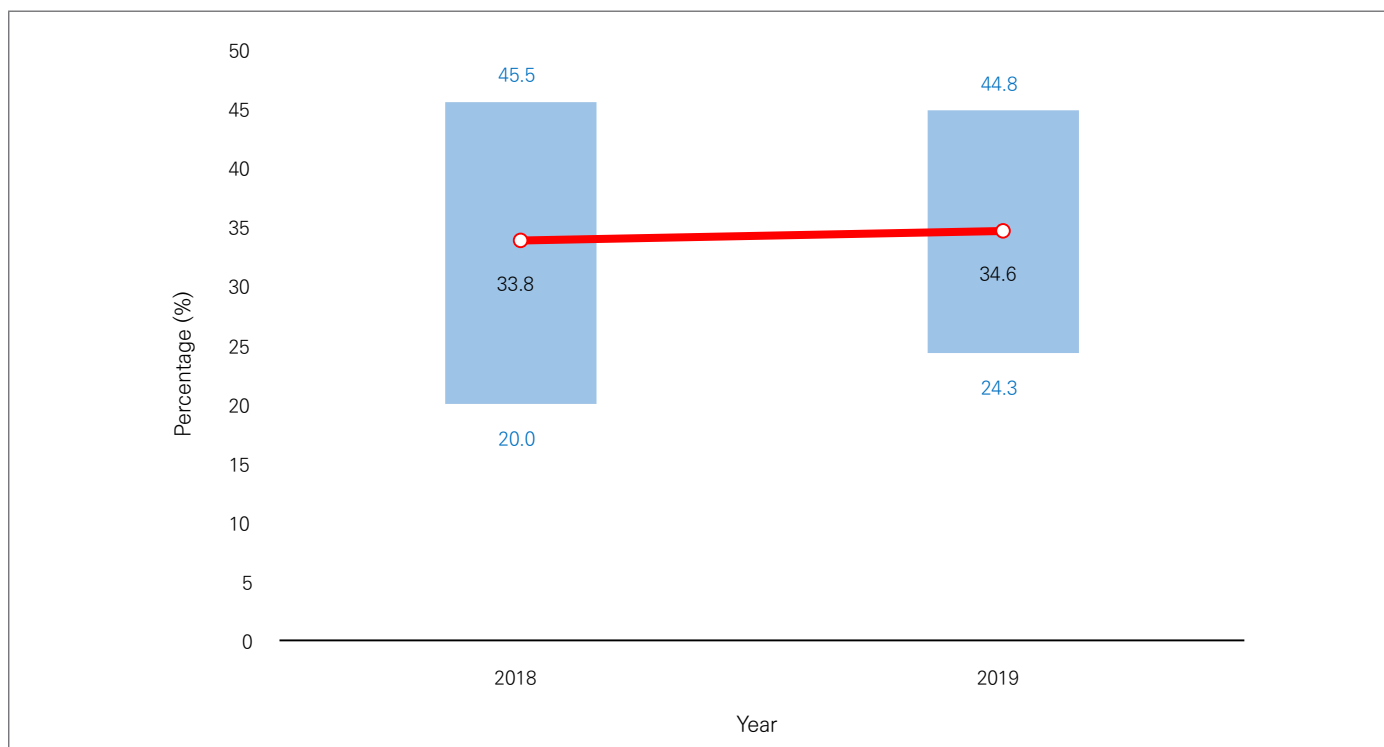


Figure 10.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obesity,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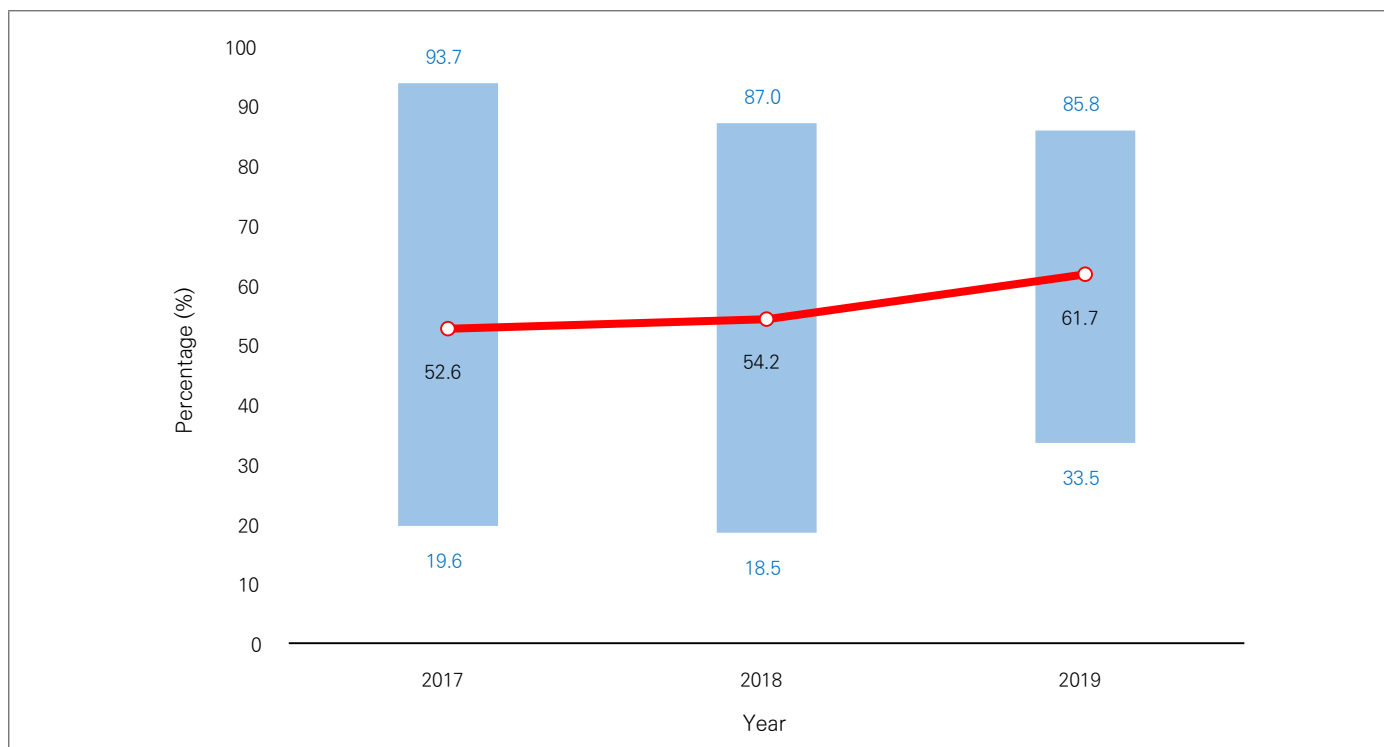


Figure 11.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awareness of early stroke symptom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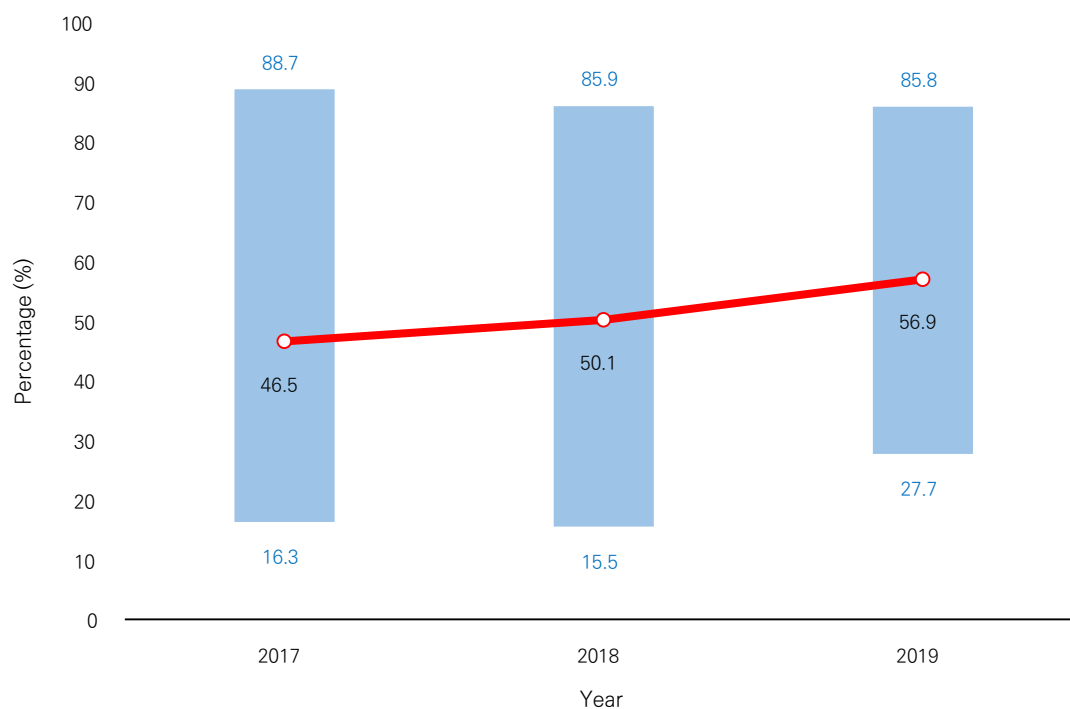


Figure 12.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awareness of early myocardial infarction,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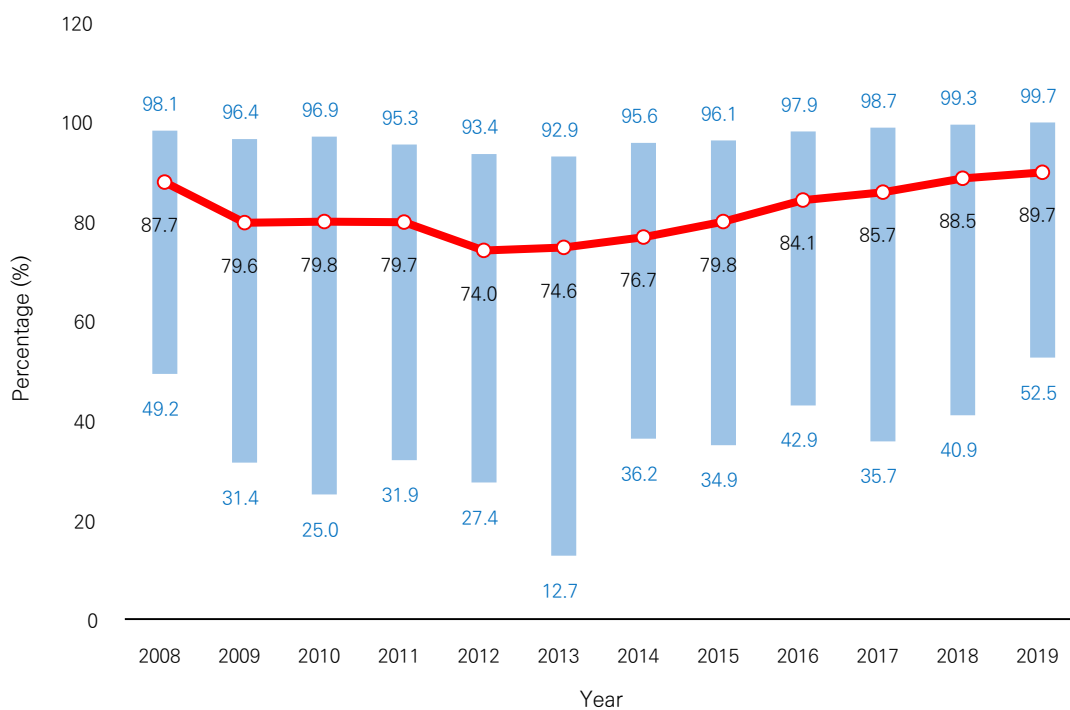


Figure 13.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drivers that wear car seatbelt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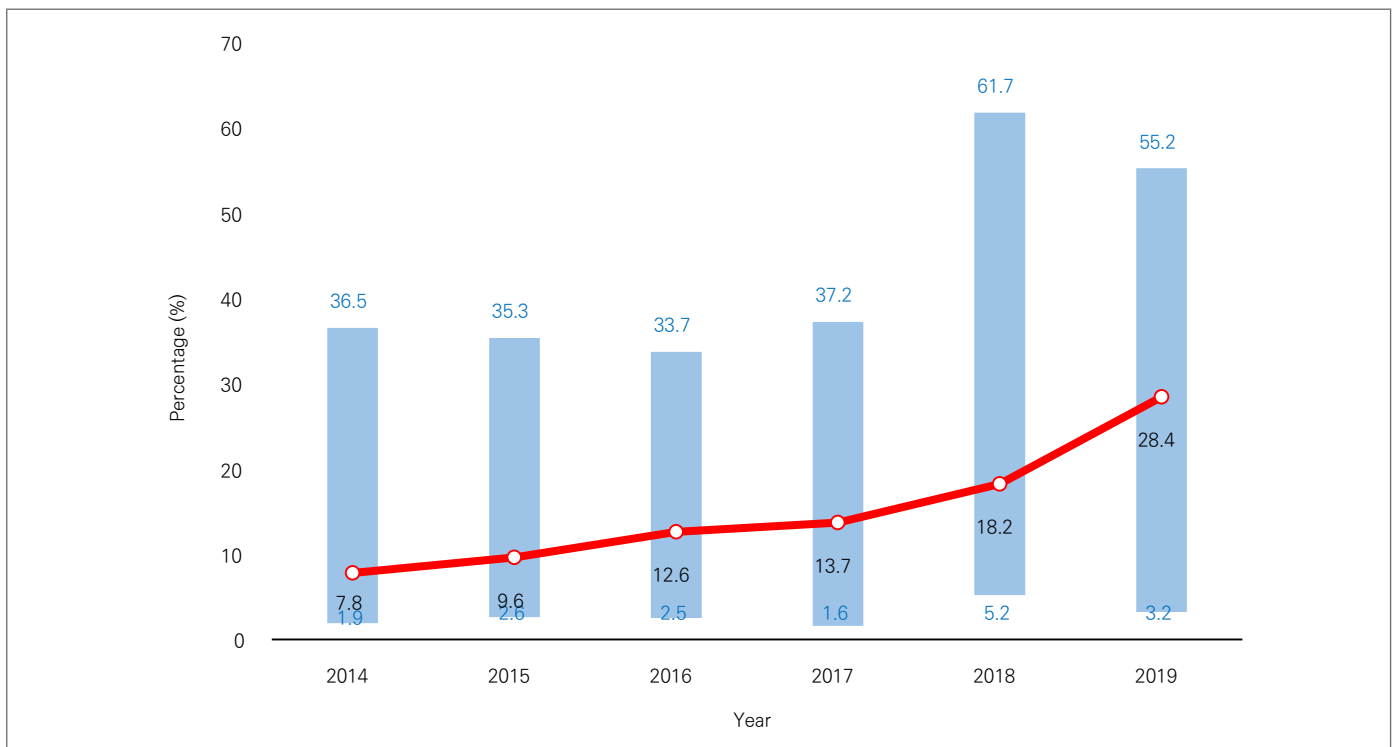


Figure 14. Trends and regional health gaps in the rates of passengers that wear seatbelts, 2008–2019

* Red line: annual median (%) and its trend among regions/cities

† Blue bar: regional gaps by year; top of bar=maximum (%); bottom of bar = minimum (%)